DOI http://dx.doi.org/10.22143/HSS21.12.3.114

The Effect of Mother's Parenting Behavior on Children: The Mediating Effects of Parenting Anxiety and Parenting Guilty

Yunyong Eom & Wonyoung Song

Abstract: The study was to verify the effect of a mother's parenting behavior on children through the mediation of parenting anxiety and parenting guilty. A survey of 200 pairs of mothers and children were used the PB, PA, PG, CDI, CDS, and PRS-AC, and multiple regression and multiple mediation model analysis conducted. Results are as follows. The mother's parenting behavior affected PA, PG, CDI, CDS, and PRS-AC. Also, we found that PA and PG had a mediation effect between them. These results suggest that it can help with parenting counseling by showing the mediating variables, and they laid the foundation for the parenting program development.

Key Words: Mother's Parenting Behavior, Parenting Anxiety and Parenting Guilty, Child Depression, Daily Stress, Peer Relational Skills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양육불안과 양육죄책감의 매개효과검증*

엄 연 용** · 송 원 영***

요약: 이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밝히고 양육불안과 양육죄책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표가 있다. 이를 위해 200쌍의 어머니와 아동을 대상으로 양육행동, 양육불안, 양육죄책감, 아동의 우울, 일상적 스트레스, 또래관계기술 척도를 사용하여 중다회귀분석과 중다매개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양육불안과 양육죄책감, 아동의 우울, 일상적 스트레스, 또래관계기술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우울, 일상적 스트레스, 또래관계기술 간의 관계에서 양육불안과 양육죄책감이 완전 매개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양육행동을 중재하는 변인을 밝힘으로써 양육 상담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양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에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핵심어: 어머니의 양육행동, 양육불안과 양육죄책감, 아동의 우울, 일상적 스트레스, 또래관계

□ 접수일: 2021년 5월 31일, 수정일: 2021년 6월 18일, 게재확정일: 2021년 6월 20일

* 이 논문은 2020년 한국임상심리학회 가을 학술대회에서 포스터로 발표되었음.

** 주저자, 건양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박사과정수료
(First Author, Completion of Doctoral Course, Konyang Univ., Email: eyy83@hanmail.net)
*** 교신저자, 건양대학교 교수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Konyang Univ., Email: song@konyang.ac.kr)

www.kci.go.kr

I. 서론

아동은 성인이 되기까지 부모의 양육을 통해 성장하며 어머니는 주 양육자로서 인식되어 왔다. 아동의 출생에서부터 시작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발달, 정서, 사회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Abidin, 1992; Harold & Frances, 1995). 이에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우울을 비롯하여 일상적 스트레스와 또래관계의 주요 예측변인으로 연구되어 왔다.

양육행동 중에서 어머니가 받는 스트레스는 지속적으로 누적되며 아동의 스트레스를 자극하여 건강한 발달을 위협한다(Morales & Guerra, 2006).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는 일상에서 경험하는 사소한 문젯거리로 심리적 안녕의 지표로 사용된다(Fields et al., 2021). 최근 아동종합실태 조사에서 우리나라 아동은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으며(64%) 그 중에서도 부모에 의한 스트레스가 56%로 가장 높았다(류정희 외, 2019). 한계를 설정하는 양육행동은 아동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나 과도한 한계설정은 아동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과보호 양육행동도 아동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손남숙·이숙희, 2008; Teetsel et al., 2014). 스트레스의 대표적인 결과인 우울은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슬픔,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게 하고, 흥미와 즐거움이 감소하는 정서상태로 우울이 오래 지속되거나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할 경우 병리적 문제가 발생한다. 우울은 아동의 학업수행 어려움, 부정적 사고, 정서적 고립감을 통해 학교 부적응, 또래문제, 자살 등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유발한다(오경자·양윤란, 2003). 과보호나 거부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학교적응에도 영향을 미친다(유정아·정익중, 2014). 마지막으로 또래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학령기는 또래관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또래관계기술에 반영되고 아동은 또래관계를 통해 학교 적응, 정서적 안정감,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한다(이은해·김정윤·오원정, 2001). 온정적 양육행동은 사회적 기술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과보호 양육행동과 거부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거부민감성, 또래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Morales & Guerra, 2006).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라 변화하기도 한다. 유아기는 어머니에게 돌봄이 강조되지만 학령기가 시작되는 초등학교 시기는 어머니에게 아동의 일상생활지도, 학습지도, 학부모로서 역할이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는 아동의 학교적응과 학업능력에 민감해지고 새로운 역할에 따른 걱정과 불안을 경험한다(신수희, 2019; Pass et al., 2017).

양육불안이란 부모역할을 수행하면서 느끼는 불안으로 양육과정에서 경험하는 변인이다

www.kci.go.kr

(위지희, 2014). 양육행동과 양육불안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애정적, 자율적 양육행동을 할수록 양육불안이 낮았고 거부적, 통제적 양육행동을 할수록 양육불안이 높았다(위지희, 2014; Hiroki et al., 2012). 또한 양육불안은 아동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양육불안이 높을수록 아동의 작업기억이 높고 행동억제와 정서적 실행기능이 낮아지며, 아동의 부정정서 표현과 문제행동 및 우울도 증가하게 된다(박애경, 2015; 손영미, 2016; 정세진·신나리, 2018).

양육죄책감은 양육하는 과정에서 양육행동이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유발되는 감정이며 양육자는 자책, 후회, 수치심을 보인다(성정원·박성연, 2011).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지나친 책임감, 문지기역할이 죄책감을 쉽게 유발한다(Allen & Hawkins, 1999). 특히, 어머니가 평가한 자신의 행동이 한국 문화에서 기대되는 양육행동과 불일치한다고 느낄 때 양육죄책감이 증가하고, 증가한 어머니의 양육죄책감은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 대인적응성, 사회적 유능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은영·이주연, 2014).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양육불안은 양육과정에서 양육관련 요인들을 위협적으로 인지하면서 경험되기 때문에 불안을 줄이기 위해 행동억제, 회피행동, 지나친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위지희, 2014). 반면, 양육죄책감은 자신의 양육행동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발생하기 때문에, 양육자는 자녀를 탓하거나 양육자 자신이 일관되지 못한 행동으로 대처하게 될 수 있다(성정원·박성원, 2011). 따라서 이러한 차이점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양육불안과 양육죄책감의 중재에 따라 아동의 우울, 일상적 스트레스, 또래관계기술에 다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찍이 Belsky(1984)는 어머니의 양육 과정에서 심리적 요인이 중재적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그의 양육과정모델(process model)에 따르면 어머니의 심리적 요인, 자녀특성, 상황적 요인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양육행동은 어머니의 심리적 요인을 통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Belsky, 1984). 그러나 그의 연구는 한동안 심리적 요인이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에 가려졌다가 최근에서야 다시 양육행동이 심리적 측면에 양방향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를 통해 재조명되고 있다(Mikolajczak et al., 2018). 이에 양육행동이 어떤 심리적 요인을 매개로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통합적인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양육불안과 양육죄책감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험되는 중요한 심리적 요인이므로, 양육행동에 따른 매개변인으로서 이들의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양육불안 및 양육죄책감을 매개하여 아동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검증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Belsky(1984)의 양육과정모델을 기반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www.kci.go.kr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불안과 양육죄책감이 매개하는지 경로를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어머니의 양육행동, 양육불안, 양육죄책감, 아동의 우울, 일상적 스트레스, 또래관계기술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둘째,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우울, 일상적 스트레스,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영향 및 그 과정에서 양육불안과 양육죄책감의 매개효과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및 내용

1.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와 충남에 거주하는 어머니와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을 진행하기 전 대상자들에게 연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200쌍(어머니 200명, 아동 200명)에게 설문을 진행하였다. 수집한 400명의 자료 가운데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 5쌍을 제외한 총 195쌍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어머니의 나이는 30대가 84명(43.1%), 40대가 104명(53.3%), 학력은 중졸 이하가 3명(1.5%), 고졸이 63명(32.3%), 전문대졸 45명(23.1%), 대졸 66명(33.8%), 대학원 이상이 18명(9.2%)었다. 취업자 133명(68.2%), 미취업자 62명(31.8%)이었다. 참여한 아동은 남자 100명(51.3%), 여자 95명(48.7%)로 학년은 각각 1학년 51명(26.2%), 2학년 46명(23.6%), 3학년 22명(11.3%), 4학년 28명(14.4%), 5학년 28명(14.4%), 6학년 20명(10.3%)이었다.

2. 측정도구

1)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어머니의 양육행동척도는 박주희(2001)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온정격려, 한계설정, 과보호허용, 거부방임, 4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총 36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해당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박주희(2001)의 연구에서 측정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72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온정격려 .84, 한계설정 .66, 과보호허용 .69, 거부방임 .67로 나타났다.

www.kci.go.kr

2) 양육불안 척도

어머니의 양육불안을 측정하기 위하여 위지희(2014)가 개발하고 타당도를 검증한 양육불안 척도를 사용하였다. 부모역할 효능감으로 인한 불안, 자녀와의 애착에 대한 불안, 자녀의 대한 염려,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염려, 완벽주의로 인한 불안, 5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총 26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불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위지희(2014)의 연구에서 측정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9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0로 나타났다.

3) 양육 죄책감

양육죄책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장인숙(2001)이 개발한 양육죄책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 돌봄에 대한 죄책감, 부모역할에 대한 죄책감, 3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총 17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에 대한 죄책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인숙(2001)의 연구에서 측정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0로 나타났다.

4) 아동우울검사

아동의 우울검사(CDI: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는 아동의 우울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Kovacs(1983)가 개발하고 배유진·홍상황(2009)이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우울정서, 행동장애, 흥미상실, 자기비하, 생리적 증상의 5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기존 척도는 Likert식 3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5점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27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배유진·홍상황(2009)의 연구에서 측정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4로 나타났다.

5)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한미현·유안진(1995)이 개발하고 김아연(2011)이 수정한 척도(children's daily stress)를 사용하였다. 부모관련 스트레스, 또래관련 스트레스, 학업관련 스트레스, 3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기존 척도는 Likert

www.kci.go.kr

식 3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5점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21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지각하는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김아연(2011)의 연구에서 측정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2로 나타났다.

6) 아동의 또래관계기술

아동의 또래관계기술을 측정하기 위하여 Matson(1983)이 개발한 매슨 아동 사회기술 평가 척도(MESSY)를 양윤란·오경자(2005)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기보고식 사회기술 척도로 주도성, 협동/공감 2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총 19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와 긍정적 상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윤란·오경자(2005)의 연구에서 측정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8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를 SPSS 19.0 프로그램과 jamovi 1.0.0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a계수를 산출하였고,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주요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왜도, 첨도를 산출하여 분석 자료의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각 변인들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진행하였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우울, 일상적 스트레스,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영향과 양육행동이 양육불안과 양육죄책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우울, 일상적 스트레스, 또래관계기술의 관계에서 양육불안과 양육죄책감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중다매개모형분석(multiple mediation model)을 실시하였고 분석에 앞서 변인들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끝으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실시하였다.

www.kci.go.kr

Ⅲ. 연구결과

1. 주요변인 간 상관관계

어머니의 양육행동(온정격려, 한계설정, 과보호허용, 거부방임), 양육불안, 양육죄책감, 아동의 우울, 일상적 스트레스, 또래관계기술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어머니						아동		
	온정격려	한계설정	과보호	거부방임	양육불안	양육죄책감	우울	스트레스	또래관계
1	-								
2	.45***	-							
3	-.28***	-.40***	-						
4	-.51***	-.24***	.28***	-					
5	-.43***	-.27***	.45***	.48***	-				
6	-.40***	-.25***	.40***	.42***	.54***	-			
7	-.40***	-.22**	.32***	.41***	.65***	.51***	-		
8	-.38***	-.16*	.33***	.43***	.67***	.51***	.74***	-	
9	.19**	.10	-.12	-.24***	-.19**	-.28***	-.28***	-.34***	-
평균	3.56	3.66	2.35	2.60	2.28	2.64	1.91	2.26	3.73
표준편차	.44	.77	.54	.47	.69	.68	.67	.74	.59

*p<.05, **p<.01, ***p<.001.

2.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불안, 양육죄책감의 매개효과

1)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 우울 사이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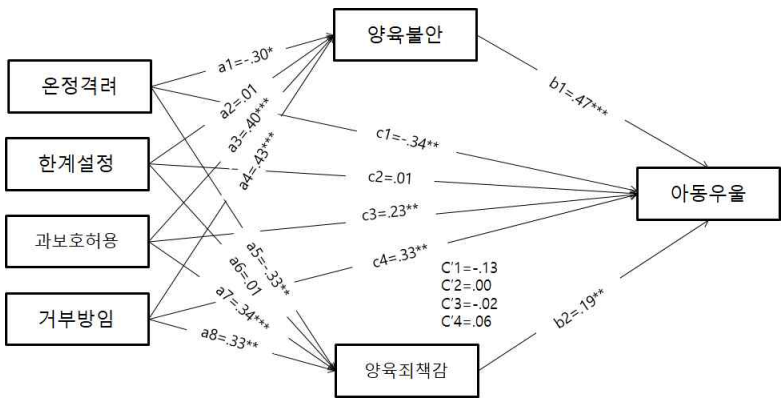
<표 2>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우울 관계에서 양육불안과 양육죄책감의 매개효과

경로	변인		*B*	*SE*	*t*	95% CI		R^2	*F*
	독립	종속				LL	UL		
독립→매개	온정격려	양육불안	-.30	.11	-2.59*	-.33	-.04	.36	27.7***
	한계설정		.01	.06	.19	-.12	.14		
	과보호		.40	.08	4.88***	.18	.44		
	거부방임		.43	.09	4.38***	.16	.43		

www.kci.go.kr

	온정격려		-.33	.12	-2.71**	-.36	-.05		
	한계설정	양육	.01	.06	.19	-.12	.15	.29	19.7***
	과 보 호	죄책감	.34	.08	4.05***	.14	.41		
	거부방임		.33	.10	3.23**	.09	.37		
	온정격려		-.13	.10	-1.29	-.22	.04		
	한계설정		.00	.05	.06	-.11	.12		
독립, 매개→	과 보 호	아동	-.02	.07	-.30	-.14	.10	.47	28.5***
종속	거부방임	우울	.06	.09	.67	-.08	.17		
(직접효과)	양육불안		.47	.06	7.07***	.35	.63		
	양육죄책감		.19	.06	2.98**	.06	.32		
	온정격려		-.34	.12	-2.82**	-.38	-.06		
독립→	한계설정	아동	.01	.06	.18	-.13	.16		
종속	과보호	우울	.23	.08	2.73**	.05	.33	.24	15.7***
(총효과)	거부방임		.33	.10	3.22**	.09	.38		

* p<.05, ** p<.01, *** p<.001.



<그림 1> 아동의 우울에 대한 매개효과 모형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온정격려(β=-.30, p<.05), 과보호허용(β=.40, p<.001), 거부방임(β=.43, p<.001)은 양육불안과 양육죄책감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온정 β=-.33, p<.01, 과보호 β=.34, p<.001, 거부 β=.33, p<.01). 그러나 한계설정은 의미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 아동의 우울로의 총 효과는 온정격려(β=-.34, p<.01), 과보호허용(β=.23, p<.01), 거부방임(β=.33, p<.01)이 유의미하였고, 한계설정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직접효과는 온정격려, 한계설정, 과보호허용, 거부방임 모두에서 유의하지 않아 한계설정을 제외하고 양육불안과 양육죄책감의 완전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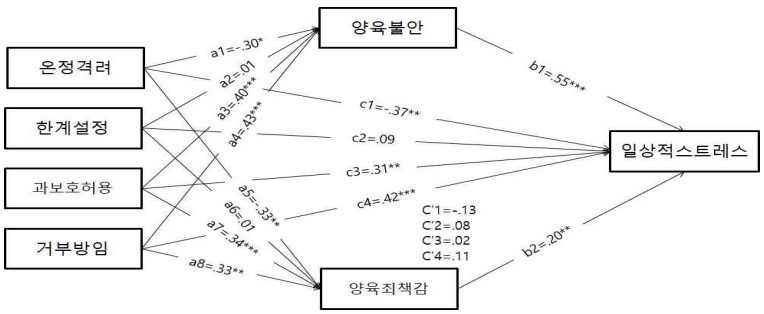
www.kci.go.kr

〈표 3〉 부트스트래핑 결과

Type	Effect	*B*	SE	95% CI		*β*	*z*
				LL	UL		
Indirect	온정격려→양육불안→아동우울	-.14	.05	-.25	-.03	-.09	-2.48*
	한계설정→양육불안→아동우울	.00	.02	-.05	.06	.00	.19
	과 보 호→양육불안→아동우울	.19	.04	.10	.28	.16	4.15***
	거부방임→양육불안→아동우울	.20	.05	.10	.31	.15	3.84***
	온정격려→양육죄책감→아동우울	-.06	.03	-.12	-.00	-.04	-2.09*
	한계설정→양육죄책감→아동우울	.00	.01	-.02	.02	.00	.19
	과 보 호→양육죄책감→아동우울	.06	.02	.01	.12	.05	2.53*
	거부방임→양육죄책감→아동우울	.06	.02	.01	.12	.04	2.29*

주) Bootstrap 표본은 1,000번. *p<.05, **p<.01, ***p<.001.

2)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사이의 매개효과



〈그림 2〉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대한 매개효과 모형

〈표 4〉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일상적 스트레스 간의 양육불안과 양육죄책감의 매개효과

경로	변인		*B*	*SE*	*t*	95% CI		R^2	*F*
	독립	종속				LL	UL		
독립→매개	온정격려	양육불안	-.30	.11	-2.59*	-.33	-.04	.36	27.7***
	한계설정		.01	.06	.19	-.12	.14		
	과 보 호		.40	.08	4.88***	.18	.44		
	거부방임		.43	.09	4.38***	.16	.43		
	온정격려	양육 죄책감	-.33	.12	-2.71**	-.36	-.05	.29	19.7***
	한계설정		.01	.06	.19	-.12	.15		
	과 보 호		.34	.08	4.05***	.14	.41		
	거부방임		.33	.10	3.23**	.09	.37		
독립, 매개→종속 (직접효과)	온정격려	일상적 스트레스	-.13	.11	-1.19	-.21	.05	.49	31.2***
	한계설정		.08	.05	1.42	-.03	.20		
	과 보 호		.02	.08	.27	-.10	.14		

www.kci.go.kr

	거부방임		.11	.10	1.17	-.05	.20		
	양육불안		.55	.07	7.50***	.38	.65		
	양육죄책감		.20	.07	2.84**	.05	.31		
독립→종속 (총효과)	온정격려	일상적 스트레스	-.37	.13	-2.75**	-.37	-.06	.26	17.1***
	한계설정		.09	.07	1.31	-.04	.24		
	과 보 호		.31	.09	3.32**	.09	.36		
	거부방임		.42	.11	3.71***	.12	.42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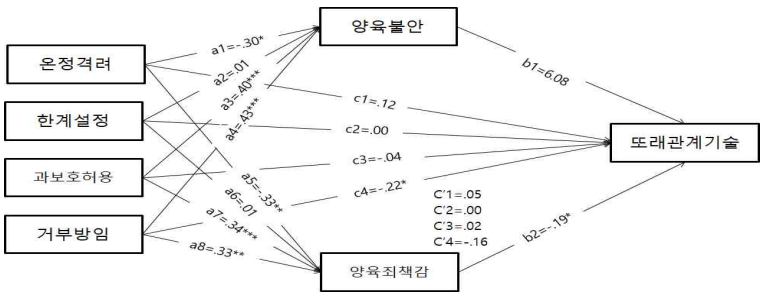
〈표 5〉 부트스트래핑 결과

Type	Effect	B	SE	95% CI		β	z
				LL	UL		
Indirect	온정격려→양육불안→일상적스트레스	-.16	.06	-.29	-.03	-.10	-2.50*
	한계설정→양육불안→일상적스트레스	.01	.03	-.05	.07	.00	.19
	과 보 호→양육불안→일상적스트레스	.22	.05	.11	.32	.16	4.22***
	거부방임→양육불안→일상적스트레스	.24	.06	.12	.36	.15	3.89***
	온정격려→양육죄책감→일상적스트레스	-.06	.03	-.12	-.00	-.04	-2.04*
	한계설정→양육죄책감→일상적스트레스	.00	.01	-.02	.02	.00	.19
	과 보 호→양육죄책감→일상적스트레스	.07	.02	.01	.12	.05	2.45*
	거부방임→양육죄책감→일상적스트레스	.06	.03	.00	.12	.04	2.23*

주) Bootstrap 표본은 1,000번. *p<.05, **p<.01, ***p<.001.

3)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또래관계 사이의 매개효과

〈표 6〉에 제시한 바와 같이 거부방임(β=-.22, p<.05)만 총 효과가 유의미한 수준이었고 온정격려, 한계설정, 과보호허용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직접효과도 온정격려, 한계설정, 과보호허용, 거부방임 모두 유의하지 않았고 거부방임만 양육죄책감을 완전 매개로 또래관계기술에 영향을 미쳤다.



〈그림 3〉 아동의 또래관계 기술에 대한 매개효과 모형

www.kci.go.kr

〈표 6〉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또래관계기술 간의 양육불안과 양육죄책감의 매개효과

경로	변인		*B*	*SE*	*t*	95% CI		R^2	*F*
	독립	종속				LL	UL		
독립→매개	온정격려	양육불안	-.30	.11	-2.59*	-.33	-.04	.36	27.7***
	한계설정		.01	.06	.19	-.12	.14		
	과 보 호		.40	.08	4.88***	.18	.44		
	거부방임		.43	.09	4.38***	.16	.43		
	온정격려	양육죄책감	-.33	.12	-2.71**	-.36	-.05	.29	19.7***
	한계설정		.01	.06	.19	-.12	.15		
	과 보 호		.34	.08	4.05***	.14	.41		
	거부방임		.33	.10	3.23**	.09	.37		
독립, 매개→종속 (직접효과)	온정격려	또래관계기술	.05	.12	.47	-.13	.22	.10	3.59**
	한계설정		.00	.06	.08	-.15	.16		
	과 보 호		.02	.09	.23	-.14	.18		
	거부방임		-.16	.10	-1.50	-.30	.04		
	양육불안		6.08	.07	.01	-.18	.18		
	양육죄책감		-.19	.07	-2.55*	-.39	-.05		
독립→종속 (총효과)	온정격려	또래관계기술	.12	.12	1.00	-.08	.26	.06	3.45*
	한계설정		.00	.06	.04	-.16	.16		
	과 보 호		-.04	.08	-.53	-.19	.11		
	거부방임		-.22	.10	-2.19*	-.34	-.01		

*p<.05, **p<.01, ***p<.001.

〈표 7〉 부트스트래핑 결과

Type	Effect	*B*	SE	95% CI		β	z
				LL	UL		
Indirect	온정격려→양육불안→또래관계기술	-1.84	.02	-.04	.04	-1.37	-.00
	한계설정→양육불안→또래관계기술	7.40	8.82	-.00	.00	9.68	.00
	과 보 호→양육불안→또래관계기술	2.45	.02	-.05	.05	2.26	.00
	거부방임→양육불안→또래관계기술	2.66	.03	-.06	.06	2.16	.00
	온정격려→양육죄책감→또래관계기술	.06	.03	-3.41	.12	.04	1.94
	한계설정→양육죄책감→또래관계기술	-.00	.01	-.02	.02	-.00	-.19
	과 보 호→양육죄책감→또래관계기술	-.06	.02	-.12	-.01	-.06	-2.29*
	거부방임→양육죄책감→또래관계기술	-.06	.03	-.12	-.00	-.05	-2.11*

주) Bootstrap 표본은 1,000번. *p<.05, **p<.01, ***p<.001.

Ⅳ.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우울, 일상적 스트레스, 또래관계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양육불안과 양육죄책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온정적

www.kci.go.kr

양육행동은 양육불안, 양육죄책감, 아동의 우울, 일상적 스트레스와 부적 상관, 또래관계기술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한계설정 양육행동도 양육불안, 양육 죄책감, 아동의 우울, 일상적 스트레스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온정적 양육행동과 한계를 설정하는 양육행동은 아동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손남숙·이숙희, 2008; Bögels et al., 2006), 본 연구에서도 어머니와 아동의 긍정적 정서와 연관이 있었다. 과보호 양육행동은 양육불안, 양육죄책감, 아동의 우울, 일상적 스트레스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거부방임 양육행동도 양육불안, 양육죄책감, 아동의 우울, 일상적 스트레스와 정적 상관, 또래관계기술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과보호 양육행동과 거부적 양육행동은 아동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유정아·정익중, 2014; Pass et al., 2017), 본 연구에서도 어머니와 아동의 부정적 정서와 연관이 있었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행동 온정, 과보호, 거부는 아동의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상적 스트레스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또래관계기술에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온정과 거부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아동은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수용적이고 애정적인 관계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정서적 안정감과 적응 능력을 높이고 또래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같은 맥락이다(Cowan et al., 1996). 적절한 한계설정도 아동에게 행동의 경계를 알려주어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손남숙·이숙희, 2008). 그러나 본 연구에서 한계설정에 대한 명확한 강도를 포함하지 않은 한계점이 있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며 후속 연구를 통해 검증될 필요가 있다. 한편, 과보호적 양육행동은 지나친 간섭과 자율성 저해로 아동의 낮은 자아존중감, 또래관계 부적응을 유발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된 결과이다(서경현·유제민·안경미, 2008). 마지막으로 아동은 거부방임적 양육행동을 통해 억압, 무관심, 결핍 등 부정적 경험을 하게 되고 이러한 경험은 정서를 취약하게 만들어 내재화 문제(우울, 부정적 정서상태), 외재화 문제(부적응, 문제행동, 공격성)를 야기한다는 선행연구와 동일하다(Cowan et al., 1996).

셋째,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우울, 일상적 스트레스, 또래관계기술 간의 관계에서 양육불안과 양육죄책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양육행동이 긍정적일수록 양육불안과 양육죄책감은 낮아졌고, 양육불안과 양육죄책감을 완전매개로 아동의 우울과 일상적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온정적일수록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양육불안과 양육죄책감이 낮아 안정적이고 일관된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결국 아동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됨을 알 수 있다(위지희, 2014;

www.kci.go.kr

Abidin, 1992). 반대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과보호적일수록 양육불안과 양육죄책감이 높아졌고 양육불안과 양육죄책감을 완전매개로 아동의 우울, 일상적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과보호 양육행동을 하는 어머니는 지나친 보호와 잦은 간섭을 하며 오히려 양육불안과 죄책감을 느끼기 쉽다. 그리고 아동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행동을 억제함에 따라 아동의 정서, 부모-자녀 관계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Abidin, 1992). 마지막으로 양육행동이 거부방임적일수록 자신의 양육행동과 사회적 양육가치의 대립으로 양육불안과 양육죄책감이 높아져 역기능적이고 비 일관된 양육행동을 함으로써 결국 아동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유정아·정익중, 2014; Cowan et al., 1996). 결국, 양육행동은 중재변인에 따라 변화되며 양육행동의 인지적, 심리적 매개효과를 밝힌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하는 결과이다(Fields et al., 2021).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으며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첫째, 본 연구는 경기도와 충남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자녀를 둔 어머니와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지역 특성을 통제하지 못하였고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를 통해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수집된 자료 중 5쌍의 자료가 단일반응으로 나타나 분석에 제외하였다. 이는 한 번에 많은 양의 설문이 주어졌고 아동의 경우 후반으로 갈수록 성실도가 낮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들에게 적합한 문항수를 고려하여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적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인들의 변화는 측정할 수 없었고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제한점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종단적 연구를 통해 어머니와 아동의 변인들 간의 영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양육과 관련된 심리적 요인을 모두 다루기가 쉽지 않았고 어머니로만 제한적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도 선택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제한점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부모를 대상으로 확장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중재하는 변인으로 양육불안과 양육죄책감에 주목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우울, 일상적 스트레스,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불안과 양육죄책감의 매개효과를 밝힘으로써 아동의 심리적 문제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 시사점을 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기존 연구들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신건강 간의 관련성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었으나, 본 연구를 통해 시작단계에 있는 양육불안과 양육죄책감에 대한 이해를 보다 넓혔다. 향후 실제적인 부모교육이나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에서 양육불안과 양육죄책감으로 인한 어려움에 대한 개입이 병행되어야 함을 제안할 수 있겠다.

www.kci.go.kr

【참고문헌】

김은영·이주연(2014),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양육죄책감과 아버지 양육지원의 상호작용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1): 167-180, <DOI: /10.7466/JKHMA.2014.32.1.167>.

김아연(2011), “아동의 사교육 경험, 자아탄력성 및 부모, 또래애착과 일상적 스트레스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류정희·이상정·전진아·박세경·여유진·이주연·김지민·송현종·유민상·이봉주(2019),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애경(2015), “어머니의 양육불안과 유아의 우울간의 상관연구”, 『유아교육학논집』, 19(5): 375-392.

박주희(2001),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목표, 양육행동 및 또래관계 관리전략”,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배유진·홍상황(2009), “아동우울척도의 구성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6(3): 265-289.

서경현·유제민·안경미(2008), “초등학생 사회불안의 예측모형: 행동억제, 부모양육태도 및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7(3): 675-693.

성정원·박성연(2011), “어머니의 취업여부 및 자녀 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죄책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보육학회지』, 11(2): 123-145.

손남숙·이숙희(2008), “부모의 양육태도가 만 4세-6세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5(2): 49-77.

손영미(2016), “어머니의 양육불안이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과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수희(2018),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전후 어머니의 양육불안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양윤란·오경자(2005), “또래관계기술 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 임상』, 24(4): 961-971.

오경자·양윤란(2003), “청소년기 사회불안의 발생과 유지의 심리적 기제Ⅱ: 6개월 추적조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3): 577-597.

위지희(2014), “양육불안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유정아·정익중(2014), “방임이 초등저학년 아동의 우울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

www.kci.go.kr

동복지학』, 47: 157-183.

이은해·김정윤·오원정(2001), “아동의 또래지위 및 친구관계와 학교적응의 관계”, 『한국아동학회』, 22(1): 1-18.

장인숙(2001), “자녀양육에 대한 죄책감, 격리불안 및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세진·신나리(2018), “어머니 양육불안과 아버지 양육참여도가 유아기 자녀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자녀 기질 유형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25(4): 155-174, <DOI: 10.15284/kjhd.2018.25.4.155>.

한미현·유안진(1995), “한국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3(4): 49-64.

Abidin, R. R.(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21(4): 407-412.

Allen, S. M. & A. J. Hawkins(1999), “Maternal Gatekeeping: Mothers’ Beliefs and Behaviors That Inhibit Greater Father Involvement in Family Wor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1): 199-212.

Belsky, J.(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1): 83-96.

Bögels, S. M. & M. L. Brechman-Toussaint(2006), “Family issues in child anxiety: Attachment, family functioning, parental rearing and belief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6(7): 834-856.

Cowan, P. A., Cohn, D. A., Cowan, C. P., & J. L. Pearson(1996), “Parents’ attachment histories and children’s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behaviors: Exploring family systems models of linkag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 53-63.

Fields, A., Harmon, C., Lee, Z., Louie, J. Y., & N. Tottenham(2021), “Parent’s anxiety links household stress and young children’s behavioral dysregulation”, 『Psychology, Medicine Developmental psychobiology』, 63(1): 16-30.

Harold, I. & P. G. Frances(1995), “Assessing children’s development using parents’ reports-The Child Development Inventory”, 『Clinical pediatrics』, 34(5): 248-255.

www.kci.go.kr

Hiroki, M., John, I. T., Shiyu, A., Nao, T., & S. Seiichi(2012), "Maternal childrearing anxiety reflects childrearing burden and quality of life", 『Pediatrics International』, 54: 504-509.

Kovacs, M.(1983), "The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 A self-rat depression scale for school-aged youngsters",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Pittsburgh.

Mikolajczak, M. R., Avalosse, H., & I. Roskam(2018), "Exhausted Parents-Sociodemographic, Child-Related, Parent Related, Parenting and Family-Functioning Correlates of Parental Burnout",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7(2): 602-614.

Matson, J. H., Rotatori, A. F., & W. J. Helsel(1983), "Development of a rating scale to measure social skills in children: The Matson evaluation of social skills with youngsters(MESS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21(4): 335-340.

Morales, J. R. & N. G. Guerra(2006), "Effects of Multiple Context and Cumulative Stress on Urban Children's Adjustment in Elementary School", 『Child development』, 77(4): 907-923.

Pass, L., Mastroyannopoulou, K., Coker, S., Murray, L., & H. Dodd(2017), "Verbal Information Transfer in Real-Life-When Mothers Worry About Their Child Starting School",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6(8): 2324-2334.

Teetsel, R. N., Ginsburg, G. S., & K. L. Drake(2014), "Anxiety-Promoting Parenting Behaviors: A Comparison of Anxious Mothers and Fathers",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45(2): 133-142.

www.kci.go.kr